



경규정 Gyugeong Kyung / 慶奎貞



경규정은 한국인 도예가로 사람들의 생활 속 듣고, 보고, 먹고, 만지는 모든 곳에 따뜻함과 여유로움이 존재하길 바랍니다. 오브제부터 생활자기까지 여러 방면의 작업을 다양한 기법들로 풀어내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Love and Peace"입니다.

그녀의 컵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또는 그녀의 전시를 관람하는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 속 한켠이 따뜻해지어 좀 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작가는 소망합니다.

인적사항

- 1992년 서울 출생

학력 및 경력

- 2016년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도자전공 졸업
- 2016년 'Coledoban Studio' 레지던시
- 2017년 국립무형유산원 [사기장] 시민공방 보조강사
- 2019년 일본 아리타 요업기술센터 졸업
- 2022년 일본 국립사가대학교 대학원 지역디자인과 도예전공 수료
- 현재 대만 Kuilin studio Designer, Potter

전시 및 활동

- 2015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제12회 졸업전시, 서울
 - 2017년 도자, 회화 2인전 [Black Room], 전주
 - 2018년 도자, 회화, 시 3인전 [구제역 돼지 구하기], 서울
 - 2019년 도자, 회화 2인전 [557km], 서울
 - 2021년 [2x2x2] 전시 활동, 사가, 일본
 - 2024년 도자 2인전 [in], 타이난, 대만
 - 2024년 초대전 kuilin studio [八選過海], 서울
 - 2025년 동아시아 문화 교류이벤트 [Episode_About] 기획 및 퍼포먼스, 타이난, 대만
-



이재용 Yi Jaeyong / 李在庸



오래된 물건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박물관이나 골동품 가게에서 유물들을 마주할 때,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졌던 시대의 공기와 삶의 방식을 함께 상상하게 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마치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생각에 잠시 빙의된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몰입의 즐거움은 저에게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유물이나 오래된 사물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고, 시간 속을 건너온 메시지라고 느껴집니다. 그 안에 담긴 서사에 귀 기울이며, 지금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전통도자전공)
-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미술사전공)

경력

- 2024년 한일 전통기와교류프로젝트 기획·퍼실리테이터(국가유산청·혜안)
- 2023년 2024년 월간도예가 주목하는 도예가 11인 선정(월간도예)
- 2021년 충남무형문화재대전 객원 전시큐레이터(충청남도·충남문화재단)
- 2018년 NCS 학습모듈도자공예분야 대표집필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7년 NCS 도자공예분야 개선전문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시

- 2024년 2인전 『Artist_찰다』 (잇다스페이스)
 - 2024년 단체전 『도자, 수목원을 담다』 (국립세종수목원)
 - 2023년 개인전 『토기숲』 (지소갤러리)
 - 2023년 개인전 『검은 달』 (조치원 문화정원 전시공간 샘)
 - 2022년 개인전 『토기식물원』 (뱅크드1아트센터 갤러리)
 - 2022년 단체전 『心尋; 마음을 심는 그릇』 (갤러리한옥)
-



카와지리 준 川尻潤 / Kawajiri Jun



카와지리 준은 1964년 일본 교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도쿄예술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깊이 있는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교토예술공예대학교 도자기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일본 도자기 예술에는 균열, 칩, 왜곡과 같은 '불완전'을 사랑하는 '다도'에서 비롯된 미적 감각이 있습니다. 카와지리는 이 미적 감각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작품의 주요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곳곳에 균열과 변형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과 존엄성으로 빛나고 강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 세계, 그리고 우주를 표현합니다.

학력

- 1996년 도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일반 디자인 과정 시설 졸업
- 1989년 도쿄예술대학교 종합디자인대학원 석사 과정
- 1992년 도쿄예술대학교 종합디자인대학원 박사 수료

수상 이력

- 1997년 국제 다색 도자기 대회 '97 전시회 참가 신청 접수
- 1998년 일본 현대공예 미술전 전시회 출품
- 2003년 일본 현대공예 미술전 현대공예상 수상
- 2004년 "니텐"에서 우수상 수상
- 2005년 "니텐"에 작품 초대
- 2018년 아트 페어 '초 교토' 게스트 아티스트
- 2021년 게스트 아티스트 '시가라키 도자기 박물관'
- 2022년 '시가라키 도자기 박물관' 전시회

컬렉션

- 교토 시립 미술관
 - 시가라키 도자기 박물관
 - 오사카 대학교 박물관
 - 스웨덴 왕실 컬렉션
-



코이데 나오키 小出 ナオキ / Naoki Koide



코이데 나오키는 196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나 1992년에 도쿄 조형대학 조형학부 미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치바현을 거점으로 제작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이데는 주로 FRP(합성 수지), 세라믹, 나무 등을 이용해 사랑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섬뜩하고 이상한 입체 작품을 만듭니다. 구름 귀신이나 해골 등 이계의 존재들이나, 자신과 그 가족을 작품화해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적이며 정이 넘치고, 자전적이면서도 감상자의 기억을 본질적으로 자극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경부터 작업의 주된 소재를 FRP에서 세라믹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시가 현립 도예의 숲에서 체재 제작의 기회를 얻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이데는 세라믹이라는 소재 특유의 "배신"을 통해 제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력

- 1992년 도쿄조형대학 조형학부 미술학과 졸업

주요전시

- 2003년 그룹전 「매직·룸」 (Project Room/코야마 도미오 갤러리)
- 2004년 「카페 인 미토」 (미토 예술관 현대 미술 갤러리, 이바라키)
- 2006년 「매지컬 아트 라이프」 (도쿄 원더 사이트 시부야, 도쿄)
- 2006년 「Fiction@Love」 (MOCA Shanghai, 상해, 중국)
- 2009년 「neo Part1 [BOY]」 (타카하시 컬렉션 히비야, 도쿄)
- 2009년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츠마 아리 아트 트리엔날레 2009」 (니가타)
- 2011년 「Paul Clay」 (Salon 94 Bowery, 뉴욕)
- 2012년 「Maternity Leave」 (코야마 토미오 갤러리)

코이데는 코야마 도미오 갤러리에서 5번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미술 평론가 모리구치 마도카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일상이나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착상하는 본연의 자세에 주목하면서도,センチ멘털리즘에 빠지지 않고 일의 본질을 응시하는 뻔뻔함이 아티스트로서의 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무라 켄스케 大村 健輔 / Omura Kensuke



오무라 켄스케는 1995년 대만 핑둥에서 태어났으며 대만과 일본인 혼혈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두 가지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도예를 접해본 후 그 매력에 빠진 그는 일본 도자기의 고장 '아리타'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전통 물레기술과 청화기법을 익혔습니다. 현재는 대만으로 돌아와 공방을 갖추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2018년 대만봉갑대학 토목과 졸업
- 2019년 일본 아리타 요업기술센터 졸업
- 2021년 일본 아리타 공업고등기술학교 졸업
- 2019년-2022년 일본 아리타 도예가 Iwanaga Hiroshi 사사(師事)
- 현재 대만 kuilin studio CEO

전시 및 활동

- 2019년 [LOHAS Festival] 활동 참여, 도쿄, 일본
 - 2021년 아리타 공업 고등기술학교 졸업전시, 아리타, 일본
 - 2024년 도자 2인전 [*in*], 타이난, 대만
 - 2024년 초대전 kuilin studio [八選過海], 서울, 한국
 - 2025년 동아시아 문화 교류이벤트 [Episode_About] 기획 및 퍼포먼스, 타이난, 대만'
-

린 신지에 林欣頡 / Lin Hsin-Chieh



대만 난터우에 위치한 텐싱요(添興窯, Tian Xing kiln)의 4대째 도예가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가업에 돌아와 도예 기술과 가마 운영을 배우며 점차 도자 산업의 운영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뱀 가마(老蛇窯)가 있으며, 200년이 넘는 난터우 도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자 브랜드 '지시위 도예 스튜디오(Sun Rain Ceramics studio)'를 설립하였으며, 현대 도예 생활용품을 알리기 위해 소가족과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자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다기, 화기, 커피 용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난터우 도자의 조각난 기록을 찾아 모으며, 이 땅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대만 난터우 지지 진 添興窯 4대 도예가
- 국립 타이완 예술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대학원 졸업
- Sun Rain Ceramics Studio 책임자
- 도예 창작, 강의, 디자인 개발 전담
- 난터우현 마오뤄시 지역사회대학 도예 강사
- 난터우현 문화국 문화 자원봉사자 강사
- 난터우 고등학교 도예 연수 강사

교육 활동

- 2023년~현재: 난터우 마오뤄시 지역사회대학 도예 강사
- 2024년: 난터우 아름다운 도시행동 도예 분야 협력 기관
- 2023년: 난터우현 교육처 예술미감 교육 프로젝트 강사
- 2023년: 난터우 문화국 문화 자원봉사자 강의
- 2022~23년: 공예센터 '공예 마을 견학 - 도예 교사 양성 과정' 강사
- 2020년: 공예센터 '독특한 예술, 생활공예 미학 확산 활동' 강사

전시 및 수상이력

- 2024년: Sun Rain Ceramics Studio 5주년 전시
 - 2023년: 까르푸 문화예술제 참가
 - 2019년: 일본 후쿠이현 「RENEW」 공예 축제 초청 강연
 - 2016년: 경제부 선정 10대 우수 혁신 전통 상점, 대통령 면담
 - 2011년: 일본 Interior Lifestyle Tokyo 도쿄 국제 리빙 디자인 박람회 참가
-



곽샤오윈 郭曉雯 / Kuo Hsiao-Wen



Cicada 수공예 생활 대표, Footprint 지속 가능한 여행 숙소 매니저, Tianyu Plum 매장 관리자입니다.

1988년생. 국립가오슝대학교 전통공예 및 창의디자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4년 개인 수공예 브랜드 'Cicada 수공예 생활'을 설립하여 수제 모자와 가방 제작을 시작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마켓에 참여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자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여, 바늘과 실로 천 위에 그림을 그리듯 색채를 표현하며, 한 땀 한 땀 천천히 바느질하는 치유의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개인 창작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 및 개인 클래스에서 자수 수업을 통해 수공예 문화를 전파해왔습니다.

자연과 대만의 전통적인 사물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과 대만의 일상에서 창작 영감을 얻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하며 약간의 동심이 느껴지는 작품을 통해 삶의 감각과 개인의 서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 후에는 도예를 배우기 시작하여, 도예 수업 보조 및 Sun Rain Ceramics(지시위)의 도자 체험 가이드, 어린이 도예 클래스 기획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도자 작업은 주로 핸드빌딩 기법과 도판 조각 위주이며, 2024년에는 Sun Rain Ceramics 5주년 기념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수업을 열 수 없어 지속 가능한 관광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현재 Footprint Inn 매니저이자 Tianyu Plum 매장의 관리자입니다. CU-GSTC 인증 갱신 심사 및 GTS 골드 등급 인증 절차를 주도적으로 맡아, 회사가 두 번째 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대만에서 유일하게 GTS 골드 등급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창작자의 섬세한 시선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시 이력

- 2024년: Sun Rain Ceramics 5주년 기념 그룹전 참여
- 2021년: 개인전 《시간 속의 생명》
- 2019년: 2인전 《지금 잘 지내나요?》

출판

- 2021년: 『자수를 하자: 나의 프랑스 자수 소확행』 공저

브랜드 활동

- Cicada 수공예 생활: 자수 및 섬유 디자인, 창작 및 수업 운영



린칭처 林精哲 / LIN CHING CHE



1988년 일본 치바에서 태어나 대만 타오위안 출신입니다. 2017년 국립 타이난 예술대학 응용예술연구소 세라믹 그룹을 졸업했습니다. 미국과 핀란드 등에서 예술가 레지던시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타이둥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이완족(대만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의 생활 경험과 해외에서의 문화 교류가 린칭처만의 독특한 교차 영역 사고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실생활에서 사물과 자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땅 사이의 자연적인 연결을 탐구합니다. 신체의 존재감과 자아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과 원래 문화 및 토지 간의 소외된 관계를 성찰합니다.

학력

- 2017년: 국립 타이난 예술대학 응용예술연구소 졸업
- 2010년: 국립 타이난 예술대학 재료예술디자인학과 졸업

레지던시

- 2014년: 핀란드 북극 세라믹 센터, 포시오
- 2014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MU)
- 2012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USC)

작품 소장

- 2019년: "내 몸의 풍경" 타이둥 예술박물관, 대만
- 2018년: "전통 파이완 포트" Riddu Riddu Festivála, 노르웨이
- 2016년: "전통 파이완 포트" 광 박물관, 광

주요 활동

- 2022년: "ITA RESORT MIXED DAOFENG 리빙 크래프트" 개인전, 타이둥 "tsvulj" 2022 대만 세라믹 비엔날레, 신타이베이시 "오브젝트를 넘어서" 개인전, 타이베이
- 2020년: "tsvulj" 2020 타이둥 크래프트 디자인 어워드 "beyond" 개인전, 타이베이
- 2018-19년: "2018 오스트로네시안 국제 예술상" - '내 몸의 풍경', 특별상 수상 "위대한 섬" 그룹전, 타이베이 "Atom" 개인전, 타이난
- 2017년: "제11회 미노 국제 세라믹 경연대회" - '섬', 특별상 수상, 일본 "2017 아시아 현대 세라믹 아트" 공동전시, 일본 "오브젝트 밖에서" 응용예술연구소 졸업 개인전
- 2010-15년: "2015 아시아 현대 세라믹 전시회" 공동전시, 중국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 참여 (국내외)